



몸도 다련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하이킹 즐길 만할 곳

김동정 동화작가 · 수필가

자 연 속에 묻히면 누구나 자연인이 된다. 일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자연의 품은 아늑한 휴식처이다. 집과 직장에서 며칠 동안 벗어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영겨붙은 답답함을 깨끗이 행귀낼 수 있다. 하이킹은 삶의 재충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낮은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산천의 순수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하이킹이 요즘 새로운 여행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에서 벗어나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길을 걷다 보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 걷다 지치면 그 자리에 드러누워 잠깐 눈을 붙이거나 푸른 하늘 뭉개구름과 눈맞춤을 해보자.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물길따라 산길따라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넘어간다.

▶ 해안길이 아름다운 강화도와 석모도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강화도는 언제 가봐도 독특한 정취를 풍긴다. 인천광역시에 딸린 이 섬은 아름다운 해안길과 문화유적이 풍부해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다소 번잡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하나하나 접하다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이곳에선 차를 타고 달리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는 것이 좋다. 구비구비 이어진 해안길을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다보면 학교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상쾌해질 것이다. 강화대교를 건너면 먼저 반기는 것

이 강화도 역사관과 갑곶돈대, 고려궁터이다. 이 곳을 둘러보고 발길을 서쪽으로 돌리면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는 전등사와 신라 고찰 정수사, 마니산, 참성단, 하점면 고인돌군, 초지진, 광성보, 덕진진으로 가는 길이다. 강화도는 땅 전체가 문화유적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산 들 바다를 고루 품고 있으면서도 어디를 가나 유적지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외포리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5분이면 닿는 석모도는 섬의 정취가 물씬 배어난다. 석포리 나루에서 내리면 석모도를 일주하는 꿈같은 길이 펼쳐진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선착장 부근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으며 섬 전체를 돌아보는데 2시간 30분쯤 걸린다. 석모도를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갖고 가면 훨씬 편리하다.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가 잘 뚫려 있어 하이킹 코스로 그만이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다시 배를 타고 강화도로 나와 길상면 선두리와 동검리에 펼쳐진 광활한 개펄밭을 구경하는 것도 좋다. 인간의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갯벌의 효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개펄밭에 들어가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 재미도 재미지만 하루해가 짧게 느껴진다.

강화도는 볼거리도 많지만 무엇보다 토종 특산물이 풍부한 고장이다. 강화읍내에 있는 토산품판매점이나 인삼센터, 풍물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댄다. 강화도에서 나는 농수 축산물도 전국에서 알아줄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우선 이곳 농민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 농산물을 재배한다.

그 중에서 뿌리가 주먹 두 배만 하고 진지주색을 띠는 순무는 강화쌀, 약쭉, 고추, 마늘과 함께 무공해 농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후와 토질이 잘 맞는 황해도와 강화 일대에 서만 재배된다는 이 순무는 그 뿌리로 깎두기를 담가 먹는 게 보통이다. 순무 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이 농산물은 화문석, 인삼과 함께 강화도의 3대 특산물로 꼽힌다. 바다에서 나는 밴댕이도 강화도의 명물이다. 밴댕이는 젓을 담그기도 하지만 회로 먹거나 갖은 양념을 넣어 무쳐 먹는 게 일반적이다.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로 이어지는 강화도 앞 바다가 밴댕이의 주 어장이다.

▲**자투리 정보**=서울에서 48번 국도를 타고 김포를 거쳐 강화도로 간다. 지난 해 개통한 강화제2대교(초지대교)를 타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서울 신촌터미널에서 20분 간격으로 있는 강화행 버스를 타면 된다. 외포리까지 직접 가는 버스로 1시간마다 운행한다. 일단 강화도에 들어서면 이정표를 따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버스터미널에서 각지로 가는 버스가 수시로 있다. 강화도에서 석모도로 가려면 내가면 외포리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된다. 외포리 횃집촌에서 밴댕이와 순무를 맛볼 수 있다.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incheon.kr)

▶ **대관령 옛길과 경포호수**

“늙으신 어머니를 강릉에 두고/ 이 몸은 홀로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 문 산을 날아내리네”. 신사임당이 대관령 옛길을 넘어 한양 가는 길에 읊었다는 시이다. 대관령 옛길 출발점은 대관령 정상 부근의 반정(半程)이나 고개 아래의 어흘리 마을 또는 대관령박물관 앞이다. 반정에서 내려가면 강릉 가는 길이고 어흘리나 대관령박물관 쪽에서 오르면 서울 가는 길이다. 대부분 반정에서 걸어 내려가는 길을 택한다. 지금은 어쩌다 등산객이 찾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 옛날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던 중요한 길답게 어른 두셋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널찍하다. 일단 대관령 옛길로 들어서

면 조용하기 이를 데 없다. 지저귀는 새소리며 풀벌레들의 합창, 여기저기 피어난 들꽃 무리는 참으로 평화롭다. 울창한 산림은 이내 해를 가리고 아름다리 수 백년 묵은 노송들이 기상을 뽐낸다. 옛길을 다 내려오면 오른편으로 대관령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어흘리 마을에서 2km 떨어진 자연휴양림은 70년이 넘는 소나무숲이 백백이 들어차 있으며, 2시간 가량 걷는 산책로가 좋다. 부대 시설인 산림휴양관은 12개의 잠자리를 갖추고 있다. 대관령 아래 동해 안쪽에 자리한 강릉땅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답게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오면서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문화재 또한 풍부하다. 그 중에서도 울곡의 탄생지인 오죽헌에는 신사임당이 용품을 꾸고 울곡을 낳았다는 몽룡실, 울곡 영정을 모신 문성사, 신사임당과 울곡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울곡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주위에 수백 년 된 노송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운치를 한층 더한다. 오죽헌에서 2km쯤 떨어진 경포호수는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둘러보기 좋다. 곳곳에 자전거 대여점이 마련돼 있다. 갈대와 수초, 소나무가 둘러싼 4km 정도의 호숫길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린다. 이밖에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선교장은 가옥의 규모도 크지만 4천여 점에 이르는 장서와 손때 묻은 생활유물, 거기에다 아담한 연못이며 널찍한 정원까지 갖추어 놓아 살림집으로서는 드물게 완벽한 짜임새를 보여 주고 있다.

▲**자투리 정보**=대관령 정상에 옛길 이정표가 서 있다. 가파르지 않은 산길로 2시간쯤 걸린다. 어흘리 마을에서 옛길을 타고 대관령 정상까지 가는 방법도 있다. 어흘리 마을에서 강릉 시내(경포대)까지 시내버스가 자주 다닌다. 20분 소요. 허균 생가가 있는 초당동은 바닷물을 간수로 쓴 ‘초당순두부’로도 유명한 마을. 허균생가 대문 앞의 토담순두부(033-652-0336)를 비롯해 할머니순두부(652-2058), 원조순두부(652-7477) 등 많은 순두부집이 있다. 강릉종합관광안내소(033-640-4414), 강릉시청 홈페이지(www.gangneung.gangwon.kr), 대관령자연휴양림(033-644-8327). 